‘나는 올바르다’는 착각서 벗어나라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유식학에 따르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의 의식이 반연하여 만들어낸 경계이다. 이 말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곤혹스러운 사실을 들춰낸다. 우리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지만, 유식학이 말하는 진실은 이 믿음이 자기기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세상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멋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언제나 변명거리가 준비돼 있다. 그것은 사소하거나 불가피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마도 자기기만이 그저 혼자 자기도취에 빠진 것이라면 세상은 그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혼란과 나 스스로 겪는 고통이 모두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어떤가? 나는 올바르고 정당한데 어떻게 혼란의 주범이냐고 곧장 반박할 것이다.

사실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은 세상의 혼란 정도가 아니라 모든 폭력의 원인이다. 나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그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올바름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세상, 악인이 사는 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는가? 타인의 악이 바로 나 자신의 투사임을. 적어도 유식학에 따른다면 세계는 나의 의식이 반연한 결과니까.

‘난 옳다’는 생각, 모든 폭력의 원인
맹목적 믿음, 타인 그름 만들기 때문
타인의 악함은 자신의 투사임을 알라

내가 올바르다는 생각은 나의 내면에도 폭력적으로 작용한다. 이상적인 나를 위해 나는 내 속에 있는 결여를 발견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 결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는 가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세상도 속인다.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은 사적인 관계에서도 관계를 왜곡시키지만 공론의 장에서 작용할 때 그 위험은 증폭된다. 그 중에서도 정치와 종교는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이다. 생각과 의례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 나의 올바름에 대한 생각은 강화된다. 정치적 주장과 종교적 신념으로 결속된 집단들은 너무나 손쉽게 또 공공연하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세계는 더 연결되고 더 좁아졌다고 하지만 세계는 더 고립되고 배타적인 장소로 변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을 용케 찾아내는 알고리즘 덕분에 세계는 ‘좋아요’로 넘쳐나고 나의 올바름을 확정해주는 정보들만 오늘도 클릭수를 노리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전해주는 정보들은 차단되고 나의 세계는 더욱더 강화된다. 그 누구도 정보의 망, ‘좋아요’로 강화된 경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새해 벽두부터 뒤숭숭하다. 일본 대지진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살해 시도는 새해 초부터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지난해 말, 유명 배우의 자살 또한 그러했다. 타인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나의 올바름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유식학에 따른다면, AI 알고리즘 세계 역시 나의 투사이다. 악마화된 세상, 내가 만들어냈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 세상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지 말자.

‘증오’라는 이름의 ‘신념’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갑진년 새해가 밝아진 지 열흘 남짓이 흘렀다.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의 삶이 고되지 않은 적이 있겠냐만, 희망과 설렘으로 잠시의 고됨을 내려놓아도 좋았을 새해 벽두를 정말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시작해야 했다. 야당 대표가 백주대로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회복해 1월 10일 퇴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여야 정치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돼서는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피습 사건이 속보로 전해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미칠 영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웠고, 진영을 막론하고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난무했다.

마침,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위해 그랬다고 한다. 1년 가까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확신에 찬 행동이었고, 그래서 TV 속 범인의 모습은 당당해 보였다.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는데, 다시 야만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서 씁쓸했다.

신년부터 야당 대표 피습 ‘충격’
범인 신념 실체는 ‘증오’에 기반
당신의 분노, 합당한지 돌아보라

한편, 수사 결과가 발표된 날 병원에서 퇴원하는 야당 대표는 증오의 정치,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범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앞세웠고, 그 신념의 실체는 좌와 우를 편 가르고 어느 한쪽을 용납할 수 없는 대립과 증오였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 바로 증오의 신념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집합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사실이다. 범인처럼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이가 상대방을 해치는 구업과 의업을 짓고 있다. 비단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증오와 폭력으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오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구경〉에는 폭력으로써 폭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다.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하는 구절도 여럿 있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올바른 사유를 제시한다. 또한 〈법구경〉에는 증오는 오로지 자비에 의해 가라앉혀지며, 자비만이 칼과 화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

폭력이 나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증오나 혐오가 옳지 않다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폭력과 증오를 마주하고 성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내 안의 증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타인의 증오나 분노가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느끼는 증오와 분노가 합당한가 등을 돌이켜 보자. 증오의 신념이라는 상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社 說

종지종풍 기반해 혁신하는 불교로

조계종의 신성이자 최고 지도자인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종단을 이끄는 주요 소임자들에게 조계종풍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 혁신을 주문했다고 한다.

조계종은 1월 12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종정예하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날 사부대중의 삼배를 받은 성파 대종사는 “종단은 조계종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며 “부처님 말씀은 경전으로 배우고 조사스님들 법문 귀로 들어 알지만, 세 살 먹은 어린이가 아는 것을 팔순 노인이 행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올 한해 조계종은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3원 체제인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외부적으로는 청년 전법 활성화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이뤄진다. 또한 대한민국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등 굵직한 종단 사업들도 대거 추진된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과 조사스님들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은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과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돼 온 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은 그 자체가 불교가 가진 유산이자 힘이다. 전통 속에서 변화의 길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군포교 활성화로 청년 전법 중흥을

“무늬만 수계 군불자가 아니라 전역 이후 불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역 후 불자장병이 대학에 복학하면 해당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가 동아리 활동을 안내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면 지역 주지스님이 제대 장병을 청년회 활동을 연계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진행된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종사가 내놓은 군포교 진흥 계획이다. 자승 대종사의 군포교 유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이 군장병 전법 활성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TF팀은 조계종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청년대학생전법단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군장병 DB구축을 통한 청년 전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포교 시스템 전반을 다룬다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최근 중앙신도회 및 포교단체 임원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포교를 전담할 TF 조직을 언급했다. 스님은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최선봉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군포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군포교는 미래 불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려왔다. 군대에서 맺어진 불연(佛緣)이 대학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성될 군전법 활성화 TF팀의 활동이 청년 전법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